

평화의 작은이들



새속 프란치스코 토론토 성 요한 비안네 형제회 Secular Franciscan Order St. John Vianney Fraternity of Toronto

연락처: 22 Royal Palm Dr, Thornhill, ON L4J 5R3
Tel: 905-889-6518 E-Mail: sunlee333@hotmail.com
월례회;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10:00 시

제 44 호

3 월 형제회 소식

2009 년 3 월 28 일

오늘 월례회 순서

- 오전 11 시 - Projector/ 성가
- 오전 11 시 20 분 - 리따 수녀님 영성 강의
- 오후 12 시 - 월례회
- 오후 1 시 - 친교

형제회 소식

- 다음 달 월례회는 4 월 18 일(토), 한맘 성당에서 오전 10 시에 시작할 예정이며 친교식사는 사정상 생략합니다.
- 3/28, 저녁에 토론토를 비롯한 전세계 80 개국 930 개 도시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아래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전등을 끄는 환경보호 이벤트 '지구를 위한 시간'이 실시됩니다. 우리 형제회에서 금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있는 '불편하게 살기'운동 실천사항으로 모든 회원들이 이 행사에 동참하여 오늘(3/28) 밤 8 시 30 분~9 시 30 분까지 1 시간 동안 각 가정의 전등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23(목) 오전 10 시 30 분, St. Francis Table 봉사 참여를 희망하시는 회원은 권경수 자매님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 드립니다

- 지난 3/16, 김문자 세실리아 자매님께서 외손녀를 보셨습니다. 축하해주시고, 아기가 주님의 은총 안에서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 김영옥 마리아 자매의 어머님께서 넘어지셔서 손목 뼈와 다른 곳에도 금이 가서 한달 정도 요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빠른 완쾌를 위하여...
- 병환 중이나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 회원들이 조속히 완쾌되어 형제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회개

(지난 달 2/28, 김 리따 수녀님의 월례회 사순절 특강을 요약, 정리한 것임)

회개는 복음적인 시각으로 우리 현재의 모습을 재조명해 보는 과정이다.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 오늘의 내 모습이 된 것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과 사건의 영향을 받아 현재의 내가 된 것이다. 회개란 복잡한 존재인 '나 자신'에게서 건전한 길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외부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강한 영향을 받고 살아 왔다면 이제부터는 복음에 강력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 회개의 목적지는 예수님이다. 회개는 삶을 통하여 계속되는 과정인데, 반성과 결심,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반성은 삶의 여러가지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며, 결심은 삶의 새로운 부분과 과거를 함께 조화시켜 준다. 반면에 저항과 공포는 변화와 회개에 있어서 장애물이다. 우리는 자신의 현재 상태는 알고 있지만 미래에 무엇이 닥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와 회개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들에 반발하고 두려워한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울'과 '아나니아'의 회개 과정이 다르고 시작하는 부분과 끝도 다르지만 하느님은 두 사람을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똑같이 부르신 것처럼 우리 회개의 방법도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르다. 사람이 회개하는 데

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하느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흔히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시고, 궁극적으로 과거의 두려움과 저항을 뛰어넘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은 우리를 예수님께 데려다 준다. 회개란 프란치스코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간 것처럼.

프란치스코는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고 김수환 추기경님은 생전에 “나는 죄인이다. 너무나 큰 죄인이다. 하느님은 아신다. 이런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다. 죄인이란 인식이 없으면 회개가 있을 수 없다. 프란치스코를 따른다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관참은 삶이 어떤 삶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거야 누구나 다 아는 얘기가 아닌가? 라고 주저 없이 답했다. “사람은 정직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줄 알고, 양심적으로 살아야 해요. 그걸 실천하는 게 관참은 삶이 아닌가?” 특히 이번 사순절에는 이 부분에 주력하면서 실천하기 바란다. 하나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그 소중함마저 잃는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에 있다.

회계 보고

2009년 2월 28일 현재

내역	전월 이월금	월 수입금	월 지출금	현 잔고
회비	6,270.87	2,249.35	381.70	8,138.52
선교 후원금	7,255.43	1,642.50	6,405.00	2,492.93
도서 구입	2,109.47	415.00	0.00	2,524.47

사부님 영성의 향기 (10)

‘순명’

봉사자 이선영 하상 바오로 ofs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은혜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입회한지 한 시간밖에 안 되는 어느 수련자가 나의 원장이 된다면, 나는 그에게 노인이나 아주 생각이 깊은 사람에게 심혈을 기울여 복종하듯 그렇게 순종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순명하는 형제는 장상 안에서 인간을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장상이 부족한 사람이면 부족한 사람일수록 그에게 순종하는 형제의 겸손은 하느님을 더욱 즐겁게 할 것입니다.” (2 첼라노 151)

회헌 제 19 조와 제 23 조에 따르면 “회원은 형제적 사랑과 그리스도인 증거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환경 속에서 누룩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평화는 정의의 산물이며 화해와 형제적 사랑의 결실이므로 회원은 가정과 사회 안에서 평화의 전달자가 되도록 불림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란치스코들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도록 하느님으로부터 소명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막중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단체인 재속프란치스코 형제회가 오히려 반목과 분열로 평화를 깨고 세상에 나쁜 표양을 보여주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요. 형제회 불화의 가장 큰 원인은 형제간의 순명의 덕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명의 모범을 보여 주신 사부님의 표양을 본받아 부족하고 못 마땅한 점이 있더라도 형제회 회원 간에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먼저 겸손하게 순종부터 하고 보면 부족한 것은 하느님께서 채워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행히 우리 토론토 형제회는 설립 당시부터 순종의 덕이 전통적으로 아름답게 전해 내려와서 주위에서 모범적인 형제회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금번 새로 개편된 구역모임도 회원들이 자기 소속의 구역장에게 순명의 정신으로 따르고 협조한다면 구역은 물론이고 형제회 전체가 화기애애하고 형제애가 넘치는 평화스러운 형제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혹시 자신이 순명의 덕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회원이 계시다면 주님의 은총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는 금번 사순 시기 동안에 순명의 덕을 더 해달라고 성 프란치스코 사부님께 특별히 전구를 청하면 어떨지요?

